

“선사들 화두 내삶의 방망이”

내마음 속에는 법정이 있습니다
문제 생길때마다 재판이 열리고
'최종선고' 를 행동좌표로 삼아요

산문박의 禪

문학평론가 윤재근 씨



‘여시오어(汝屎吾魚)’
‘불용우도(不用牛刀)’
안의 구절은 원효스님과 혜공스님의 일화에 나오는 것이고 뒤의 구절은 중국 선종의 거맥 조주스님 선문답의 한 토막이다. ‘함께 물고기국을 먹고 너는 똥을 누었지만 나는 물고기를 누었다’ 는 이 유명한 이야기의 토막이나 ‘나는 소 잡는 칼을 쓰지 않는다’고 도의 근본을 묻는 제자를 압도한 조주 스님의 선기(禪機)는 언뜻 듣기에 전혀 상관없는 것 같다. 그러나 두 구절은 눈 앞의 현상에 얽매어서는 아무런 문제도 풀어 내지 못한다는 공통된 가르

재판이 열리고 거기서 최종 선고를 받아 행동의 좌표로 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의 법정에는 판사와 변호사가 없습니다.
판사와 변호사가 없는 법정엔 무엇인가. 그렇다면 검사만 있다는 얘기인데 도무지 알아 들을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법정에는 검사만 있다는 것이고 그 검사는 서술이 퍼렇게 눈을 부라리며 나를 심문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매물처럼 따지고 드는데 그 검사는 다름아닌 역대 큰 스님들의 화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시오어’나 ‘불용우도’

‘욕심 사양하고 분노 삭이기’ 가장 절실한 수행

침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언어의 한계에 갇혀서선 안된다는 초월적인 교훈의 방망이인 셈이다.
이 궁극적인 방망이가 두개골 마음속에 지니고 인간 세상이 아름다워 지기를 희구하며 학문의 길에 몸을 던진 윤재근교수(한양대 국문학·60).

들이 다 윤교수의 검사들이란 얘기다. 검사들이 휘두르는 방망이 앞에서 윤교수는 삶의 본질을 꿰뚫고 인간의 진면목을 알아 내는 것이다. 이렇게 검사를 모시고 살기 때문인지 윤교수의 삶은 분명한 선을 갖고 있다.
“나는 이생에서 성불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내가 여기서 성불할 수 있는 인연공덕을 가졌다면 수행납승이 되었겠지요. 그냥 속진에 묻혀 옛 조사들의 공안이나 훔으며 살고 있으니 성불은 어림없는 일이란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성불하세요’라고 인사하면 매우 부담스러운 것도 그때문입니다만.”
굳이 성불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생에서 재가자로 할 수 있는만큼의 최선만 다하면 내생(來生)에 또다른 모습으로 수행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

지 않겠느냐는 것이 윤교수의 소신이다. 내생에 대한 믿음과 생명의 연속성에 대한 확신이 윤교수의 불교관을 이루는 주춧돌이 되고 있음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선적(禪的)인 삶 그것은 자칫 선사들의 문답과 기행(奇行)을 흉내 내는 또하나의 기행을 만들기 십합니다. 윤교수의 경우 마음속 법정의 서술 푸른 검사가 휘두르는 방망이가 있어 조사들의 화두를 자기 삶의 열쇠로 현전시킬 수 있다.

목을 자기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내가 문제였지요. 문문선사 어록에는 ‘병과 약이 서로 의지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병과 약이 서로 의지하듯 우리 생활 속의 선과 악도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는 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선사들의 화두는 나를 일깨워 주는 뜨끈한 방망이가 되는 것입니다.”
윤교수는 어떤 자리에서건 선을 얘기하길 꺼린다. 각자가 검사를 모시고 그방망이 아래서 치열하게 사는 것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일뿐 말로 이해하는 것은 이미 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선을 한 자로 풀면 ‘사양하다’의 의미가 있다는 것만큼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
“지금의 나를 사양하는 것 지금 끊어 오르는 욕심을 사양하고 분노를 삭히는 것 이런 사양의 의미가 세상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선수행이 아닐까요. 그것을 사양하지 못할 때 나는 여지없이 마음 속의 검사에게 방망이 찔릴 것을 당하는 것입니다.”

“재가자로서 최선을 다하면 來生에 수행깊이 더할 수 있겠죠”

선구·공안 자기화 해야

서적을 통해 익힌 선구들과 공안들을 생활 현장에서의 체력으로 자기화시킨 글들도 제법 많이 썼습니다. 은근한 자량이 그것을 뒷받침 한다.
“선사들의 어록을 보면 모든 글귀들이 삶의 지혜 그 자체입니다. 어떤 대

“재가자로서 최선을 다하면 來生에 수행깊이 더할 수 있겠죠”

선구·공안 자기화 해야

목을 자기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내가 문제였지요. 문문선사 어록에는 ‘병과 약이 서로 의지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병과 약이 서로 의지하듯 우리 생활 속의 선과 악도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는 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선사들의 화두는 나를 일깨워 주는 뜨끈한 방망이가 되는 것입니다.”
윤교수는 어떤 자리에서건 선을 얘기하길 꺼린다. 각자가 검사를 모시고 그방망이 아래서 치열하게 사는 것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일뿐 말로 이해하는 것은 이미 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선을 한 자로 풀면 ‘사양하다’의 의미가 있다는 것만큼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
“지금의 나를 사양하는 것 지금 끊어 오르는 욕심을 사양하고 분노를 삭히는 것 이런 사양의 의미가 세상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선수행이 아닐까요. 그것을 사양하지 못할 때 나는 여지없이 마음 속의 검사에게 방망이 찔릴 것을 당하는 것입니다.”

임연태 기자

무엇을 견성이라고 하는지요

문 조사님들의 가르침에 보면 열불이나 독경·계행·보시엔 과보가 따르지만 불지러면 반드시 견성성품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견성이라 하는지 물리시 묻습니다만 제 경우는 마음이 주인이라고 굳게 믿는데 그렇게 믿고 수행하는 자체가 견성인지, 아니면 저희들로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어떠한 다른 경계가 있는 것이지요. 공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전·인양시 동안구 호계3동)

모르는 것도 달이지만 너무 잘 알면

달 아는게 알을 막아서 성불하기 어렵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가게 된 것은 오랜 과거로부터 살아온 자기에 의해서인데 비유하자면 나무의 뿌리와 같죠. 그런데 흙이 떨어져 나무가 제뿌리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무명(無明)에 가려서 인간도 영원한 근본 뿌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성이란 제 뿌리를 보는 것인데 달리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자기는 부(父)입니다. 지금의 자기

욕심입니다. 욕심을 지내네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냥 다 놓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으면, 세세생생의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면 그게 부처이지요.

식사를 할 때의 합장자세는

문 식사를 할 때에 합장을 하는데 그 합장하는 마음은 어떠한가요?
(양주시·대구 북구 태전동)

문 주인공과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물론 일체가 더불어서 주인공이지 개별적인 주인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혼자 먹는게 아닙니다. 해어질 수 없이 많은 존재의 생명들과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 내가 밥 한그릇 먹는 게 공식(共食)이지요.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농사지은 사람의 수없는 손길이 거기에 들어갔을 것이고 김매는 사람, 비료 생산한 사람, 쌀을 날라다 준 사람, 밥 지은 사람... 수도 없는 사람이 다 함께 내가 밥 한그릇 먹는 것을 거들었으니 그들과 함께 먹는다고 해야 맞지요. 그러니 공양(供養)은 공동의 이익(利養)인 공양(共養)인 것입니다.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문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총무원 대령스님께 문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개제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는 자(子)입니다. 부와 자가 상봉하게 견성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부고 생각을 냈다하면 자인데 가만히 있으면 자가 부모 들어가 하나가 되고 생각을 냈다하면 부가 자로 나와서 하나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 부다, 자다 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자기, 참자라고 해도 됩니다만 그것은 깨닫게 있고 지금의 자기만을 자라고 알고 있으니 말하자면 애비를 모르는 자식인 셈이지요. 애비없는 홀로자식은 없는데도 말합니다. 그래서 부와 자를 합쳐 주인공! 한 것입니다. 주인공을 진실히 믿는데 견성의 길이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믿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전도 보고 열불·지계·보시도 해야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전에 공양 올리게 한 부처님에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 우주 삼라만상 전체에 올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혼자서 밥 한그릇 먹어도 이것은 나 혼자 먹은 게 아니니까 공양 하셨어요? 하고 물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체가 공식하며 돌아가니

까 한그릇 공양 올리려고 한 그릇이 되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또 남고 또 먹어도 또 남고, 이렇게 되풀이 끊어지지 않는 도리를 아셔야 합니다. 잘 음미해 보세요.

부처님 참배는 어떤 마음으로...

문 불자들이면 법당 앞을 지나칠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불전에 참배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전주전·광주 북구 운암동)

그거 간단합니다. 비록 수만개의 사람

을 참배하게 되었다해도 그 ‘일체제불의 노래’ 있지요. ‘일체제불의 마음이 내 한마음이다. ...’ 하는 노래 그것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부처님 저 형상이 내 형상이요, 부처님 저 마음이 내 마음이지요, 저 생명이 내 생명이니 둘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로 된다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량에 가서 참배를 하든 주인공! 하면 그냥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한마음이면 따로 빌 것도 없지요. 부처마음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게 비밀이 비밀입니다.

내가 잇기에 책을 볼 수 있고 독경도 하고

열불도 합니다. 그러니 그게 어찌 그 옛날의 부처님 말씀입니까? 오늘의 내것이지요.
자기를 형성시킨 부에서 자가 나왔고 자가 부모 돌아가며 부와 자가 본래 둘이 아닙니다.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진실하게 믿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분명 생수가 터질 것입니다. 어떤 경계파위를 상상하는 것부터가 장애입니다. 그 또한 주인공에 맞기세요. 또 공부한 지 몇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면 그런 생각도 아닙니다. 성불해야지 하는 것도

제5기 불교 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과정 모집

법회와 여러가지 행사를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레크리에이션으로 고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보다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포교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 방편을 찾고 계십니까? 본 회에서는 법회에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불교 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가 될 수 있는 과정을 준비하고 여러 지도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간: 불기 2540년 3월 19일 ~ 6월 16일자 (종합실습 1박 2일 포함)

강좌내용

1. 불교 교리
2. 불교레크리에이션론
3. 찬불가 (찬불가, 율동, 응용)
4. 음악 (악보 보기, 풍요, 가요, 응용-싱어송)
5. 리더쉽
6. 레크리에이션론
7. 모임의 실행
8. 프로그램의 작성
9. 레크리에이션 이벤트 (리벤트)
10. 캠프
11. 오리엔티어링
12. 하이킹
13. 만들기
14. 게임
15. 춤 (민속춤, 레크리에이션 춤)
16. 지도자의 자세
17. 심리학
18. 탈출
19. 종합실습

강사

법현스님(본회 회장), 장명문 법사(본회 연수원장), 이성훈 선생(1급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전체 이벤트 대표), 정기자 선생(본회 부회장), 권양숙 선생(불교음악지도위원), 신명숙 선생(미술 지도위원, 교사), 김희선 선생(음악 지도위원), 이상종 선생(레벤트 전문가), 김재성(레크리에이션 전문위원), 박종 교수(불성 개발 연구원장) 이성주 법사(유치원장)

강의장소

대각사(지하철 3호선 중로3가 1번 출구 옆 50m)

.....

※ 특 전: 2급 지도자 자격 수여(1기 양정숙 선생의 경우 한누리 독서운동본부의 교수로 활약하고 있음)

※ 참가비: 200,000원

불교 레크리에이션 포교회 회장 법현

문의 및 접수 (02) 935-4967 본회 사무국
(02) 433-1507 선제 이벤트
(02) 744-4503 대각사

성명서

우리 한국불교승가회 성직자와 지도자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특종종교 비호와 편파성에 대하여 이는 국민간의 위화감을 부추기고 종교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보고 2000만 불자와 국민앞에 위 성명서를 발표한다.

1. 김영삼 대통령은 14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을 당시 불자들에게 “나는 종교에 대하여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다”라는 공약을 수차 약속한 바 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2. 김영삼 후보는 대통령이 되고난 후 청와대에서 목사를 초청하여 기도회를 갖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리려는가 하면 바쁜 국사에도 교회회를 찾아 예배를 보는 여유와 깊은 신앙심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실을 언론에 크게 보도했다.
3. 분위기에 고무된 과잉 충성자들과 일부 광신자들은 부친 17사단 예하 병대에 성물을 불태우고 불상을 끌어내고 훼손하는 등 군불자들의 사기를 누르면서 신앙을 탄압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처벌이 요구되었던 당시 군 관련자들은 오히려 승진시켜 대통령 가까이서 핵심부에 두고 있으니 민·관·군·경등의 사회전반에 걸쳐 불교인의 불이익은 이 쓴 소문이 아니다.
4. 우리는 한 개인의 종교적 철학이나 신앙심에 대하여 말할 권리가 없고 시비를 논할 생각은 더욱 없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공인의 신분은 모두를 포용하고 대도부문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분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때 더 무서운 종교간의 갈등마저 부추기는 대통령의 처세는 국가의 미래를 매우 불행하고 슬프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5.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호법승가회 성직자와 지도자 일동은 다시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김영삼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방부 장관 해임, 관련자들을 조치할 때까지 정전할 것을 결의하면서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한국불교 호법승가회

| | | |
|----|---------|---------|
| 고문 | 미타사 홍법정 | 천룡암 정아정 |
| 회장 | 불광사 감자현 | 성덕사 이만오 |
| 재무 | 보탑사 구정각 | 대성암 김승갑 |
| 교무 | 청암사 신청암 | 법운사 법운 |
| | 창덕사 최성철 | 아도암 김서봉 |
| | 천영사 김법성 | 상원사 혜일 |
| | 광덕사 임보덕 | 일승암 임혜원 |
| | 보운정사 도홍 | 대원사 대원 |

주소

인천시 서구 석남1동 199
덕불산 불광사 (승가회본부)
032-583-5238